

“지금이 전성기? 이제 시작이죠!”

‘킹덤’ ‘아이템’ 배우 주지훈

최근 스크린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보인 주지훈(37)이 안방극장 공략에 나섰다.

2017~2018년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와 ‘공작’, ‘암수살인’ 등으로 믿고 보는 배우로 떠오른 그는 올 초부터 넷플릭스 최초 국내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과 MBC TV 월화극 ‘아이템’ 주연을 맡아 그 기세를 잇고 있다.

주지훈은 ‘킹덤’에서 조선의 실세 영의정 조하주와 대립하고 역모를 꾀하다가 동래(부산)로 내려가 역병의 근원을 파헤치는 세자 이창을 연기했다.

12일 오전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넷플릭스와 작업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야기 말고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게 가장 다르게 다가왔어요. 넷플릭스가 광고를 받는 곳도 아니고요. 또 (국내에서 작품을 제작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손익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쪽가다라고요.”

전날에도 ‘킹덤’ 시즌2를 촬영을 했다는 그는 “이제 시작”이라며 “시즌2는 끝도 없이 몰아친다. 시즌1에서 풀어놓은 ‘떡밥’은 100% 회수되지만 또 ‘미친 떡밥’이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주지훈은 ‘킹덤’에서 세자 이창의 대사가 일부 잘 안 들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소 의도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좀 더 간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저 수많은 중앙군이 나 하나 막자고 문경새재를 막은 것 같습니까”라는 대사였어요. 사극에서 양반 특유의 호흡이 있지만 간박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던 측면도 있죠.”

주지훈은 함께 출연한 배우들의 사극 톤에 대해 KBS ‘연예가중계’에서 “틀도 보도 못한 톤”이라고 언급, 입김이 오를

스크린서 독보적 활약

믿고 보는 배우

드라마 주연 안방극장 공략 “묵묵히 제 일 할 뿐”

데 대해 “경외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음악에 비유하자면 클래식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을 때 록이 등장한 거죠. (배)두나 누나의 그런 도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면 그런 톤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핑계를 대자면 세자라는 위치와 양반이라는 계급의 한계 때문에 차마 시도하지 못했죠.”

주지훈은 드라마 ‘궁’ (2006) 시절엔 아이돌 스타 같았지만, 어느 순간 선 굵은 연기를 잇따라 선보이며 연기파 배우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전환점이 된 작품으로 그는 영화 ‘좋은 친구들’ (2014)과 ‘아수라’ (2016)를 꼽았다.

“20대 중반엔 ‘난 다 큰 남자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궁’에서) 교복을 입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좋은 친구들’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게 됐고, ‘아수라’로 완전히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청춘로맨스극 한두편 더 할걸’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멜로드라마도 열려있다.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주면 할 의향이 있다”며 웃었다.

최근 하는 작품마다 히트해 전성기를 맞았지만 그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는 주지훈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고 되뇌는다”고 밝혔다.

“감동과 감독님과 하정우 형이 해준 말이 있어요. 작품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변수가 너무 많다고. 잘 돼도 내 덕에 잘 됐



드라마 ‘킹덤’ ‘아이템’에 출연한 주지훈.

〈넷플릭스 제공〉

다고 입에 올리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사랑 덜 받아도 자책하지 말고요. 뜻밖에 겸손하게 가리는 말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사랑받은 배우가 올해도 사랑받으리라 법 없잖아요. 묵묵히 제 일 할 뿐이죠.” /연합뉴스

김병철 잘나가네...윤세아와 광고 이어 건강식품 모델

JTBC 드라마 ‘SKY 캐슬’에서 열연한 배우 김병철(사진)이 광고에도 연이어 출연하며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건강식품 기업 천호엔케어는 새롭게 출시하는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아이 키우욱’의 모델로 김병철을 발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철은 ‘SKY 캐슬’에서 로스쿨 교수이자 쌍둥이 아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로 ‘야망의 화신’으로 불린 차민혁 교수를 연기했다.



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품에서 배우로 호응했던 윤세아와 커피 광고를 함께 찍기도 했다. 천호엔케어는 “김병철 씨가 기존 드라마 캐릭터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친근한 반전 매력을 선보

tvN ‘왕이 된 남자’ 월화 드라마 1위

SBS ‘해치’ 7.1%·MBC ‘아이템’ 4.9% 시청률 나란히 출발

JTBC ‘눈이 부시게’ 3.2%

새로운 월화드라마가 쏟아지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판도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지난 11일 새롭게 출발한 드라마는 MBC TV ‘아이템’, SBS TV ‘해치’, JTBC ‘눈이 부시게’ 등 총 3개 작품이다.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역시 주연 배우 부상으로 인한 결방 후 전날 복귀했다.

1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새롭게 시작한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웃은 것은 ‘해치’였다.

전날 6.0%~7.1%의 시청률을 보인 ‘해치’는 ‘천한 왕자’ 연인군 이금(정일우 분), 사현부 다모 여지(고아라), 열혈 고시생 박문수(권율)가 운명적으로 대면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다.

‘해치’는 ‘이산’, ‘마의’ 등 사극을 연달아 히트시킨 김이영 작가의 작품답게 탄탄한 전개가 돋보였다. 초반부터 조선 속종말 노론과 남인의 세력 다툼 속 양쪽의 횡포, 그를 좇는 다모의 이야기가 숨 가쁘게 그려졌다.

또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코믹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극이 활

력을 잃지 않았다. 주지훈이 오랜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복귀해 관심을 끈 ‘아이템’은 4.0%~4.9%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초능력 소재로 한 판타지 드라마답게 처음부터 화려하면서도 안정된 컴퓨터 그래픽과 연이은 사건·사고가 시청자의 눈을 붙들었다.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인간적인 검사 강근 역의 주지훈과 사극 속 규수가 아닌 현대 여성 프로파일러로 돌아온 진세연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국민 배우’ 김해자와 한지민의 2인 1역으로 기대를 모은 ‘눈이 부시게’는 3.18% (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첫 방송에서는 스물다섯 해자(한지민)의 비밀이 밝혀졌다. 그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돌린 시간만큼 나이를 먹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새 작품들의 고군분투에도 월화극 1위는 tvN ‘왕이 된 남자’가 사수했다. ‘왕이 된 남자’의 전날 시청률은 8.2%였다.

전날 방송에서는 하선(여진구 분)이 중전 소윤(이세영)에게 정체를 들키는 모습이 그려지며 긴장감을 높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김병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봄이 오나 봄(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해양보고서 다시마, 15년간의 기록 50 새만금 표류기	0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35 MBC PICK X 아이템(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순간표창 세상에 이런일이(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경성판타지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00 원소집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전통 남도예 살려라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심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경제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최봉설)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슬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5:30 세계전통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코코몽3	〈당신이 꿈꾸는 그곳 콜롬비아 3부 인데스의 푸른 땅도 광비아노〉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랄랄라 뽀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한반도 평화기행 -길 따라 걷다보면, 통일기원길〉
09:00 엄마 까투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2:45 극한직업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30 랄랄라 뽀우(재)	23:55 EBS 초대석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4:4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영잡채와 불동 메밀전〉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모순은 철저히 배제하자. 48년생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60년생 신중을 기한다면 액을 비켜 가라. 72년생 인과관계를 따져서 현실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84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76</p>	<p>午 42년생 양이 많아지면서 복잡한 환경들이 조성된다. 54년생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도량이 달라진다. 66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을 이끌 것이다. 78년생 성과의 운곽이 보일 것이다. 90년생 상향 조정 되거나 늘어나는 판시세로다. 행운의 숫자 : 28, 01</p>
<p>丑 37년생 누적인 것을 해소해 줘야 한다. 49년생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여유를 버리고 있을 계기가 못되느니라. 73년생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85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55, 71</p>	<p>未 43년생 계획이 근사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55년생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67년생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79년생 양이께가 무거울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91년생 진퇴양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0, 52</p>
<p>寅 38년생 활발한 움직임이 보인다. 50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62년생 원하던 대로 될 것이니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는 마당이다. 74년생 젊은 화려하나 실속은 별로 없을 것이다. 86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차지할 수 없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3, 17</p>	<p>申 44년생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56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해결되리라. 68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조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80년생 세철목에 신경 쓰다가 감각을 놓칠 수다. 92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행운의 숫자 : 35, 81</p>
<p>卯 39년생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51년생 용기 있는 자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63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실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자. 75년생 강도에 따라 판가를 나게 되어 있다. 87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행운의 숫자 : 83, 27</p>	<p>酉 45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57년생 패도난마 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69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81년생 이전과 똑 같은 상황만 되풀이 될 뿐이니 별 것이 없다. 93년생 기운이 흥흥하니 꿈도 꾸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7, 33</p>
<p>辰 40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52년생 정황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쫓아내라. 64년생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76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완전하다. 88년생 커다란 행운이 보이지는 않지만 대고도 없다. 행운의 숫자 : 04, 68</p>	<p>戌 34년생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46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니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58년생 다지간 일이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70년생 감정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82년생 생각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리라. 행운의 숫자 : 12, 08</p>
<p>巳 41년생 징후가 보일 때 손을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53년생 진행 방향은 바르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65년생 천우신조로써 대길하는 운세이다. 77년생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89년생 형세를 이루고 있는 연원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83</p>	<p>亥 35년생 순조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미흡하다. 47년생 반증이 중요하다. 59년생 예까지 못한 돌발적 현상으로 인해 형세가 악화될 수 있다. 71년생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83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세계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8, 1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연명” ☎010-9790-8237